

조선대 해양실증센터 개소...완도 바다서 미래 먹거리 키운다

신지면에 평가실 등 8개 실험실 구축...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본격화 해조류 기반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조선대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가 문을 열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완도군 신지면에 위치한 조선대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센터장 김춘성·사진·이하 해양실증센터)가 지난 28일 개소식을 열고 차세대 먹거리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에 뛰어 들었다고 밝혔다.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활용해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제품·서비스 등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이번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의 개소로 신성장동력의 고도화를 마련했다"며 "완도군과 조선대가 협력해 얻은 결과다. 두 기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앞으로 함께 할 이 길이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개회식, 센터 소개 영상 상영, 김춘성 해양실증센터 센터장의 개회사, 신우철 완도군수의 환영사,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과 민영돈 조선대 총장의 축사, 커딩식 및 기념촬영, 현장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개소식에는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 민영돈 총장, 윤영덕 국회의원,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 전남도의회 의원, 허공희 완도군의회 의장,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 국장,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소 센터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춘성 해양실증센터 센터장은 축사에서 "이 사업이 현재 2단계 3차년도에 맞았는 데 디더이 모든 장비 구축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해조류 소재 선정부터 원료표준화, 유효성평가, 제품화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

다. 또 "완도 장보고의 도전과 개혁정신이 이곳 해양실증센터에서 다시 한 번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이번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의 개소로 신성장동력의 고도화를 마련했다"며 "완도군과 조선대가 협력해 얻은 결과다. 두 기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앞으로 함께 할 이 길이 빛나는 미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양실증센터는 2021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전남도, 완도군이 지원한 160억원 규모의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2024년 11월까지 계속된다.

해양 실증센터는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표준화 플랫폼 개발부터 식품, 의



조선대 해양헬스케어유효성실증센터가 28일 완도군 신지면에 개소했다. 조선대 김이수 이사장, 민영돈 총장, 윤영덕 국회의원,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기념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약(외)품, 화장품 등 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해양 바이오 산업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된다.

이곳은 세포배양실을 비롯해 전처리실, 이화학 분석실, 조직처리실, 소재 개발 및 보관실, 유효성 평가실, 동물실험실, 다목적실험실 등 8개 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해조류 기반 기능성 소재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기업의 표준화 플랫폼을 개발하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 연구진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해조류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조선대는 또 완도군의 위탁을 받아 해양 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도 운영한다.

해양 바이오 관련 기업부설 연구소 10개와 스타트업 30개 업체를 유치해 실증센터와 연계한 해양

바이오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대 해양생물 연구 교육센터는 산·학·연 협동 연구체제를 통한 해양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7년 문을 열었다.

해양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수산 벤처 대학'을 17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교육붕괴 대응 위해 교육청 역할·권한 강화 필요”

지방소멸 시대 교육자치 토론회 “교육부 역할·권한 재분배 시급”

전남지역 인구 소멸로 인한 교육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 역할·권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토론회 기조 발제를 한 박유희 전북대 교수는 "현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실제 교육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 단계부터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이끌고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교원평가제도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재분배는 지역 교육청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지난 27일 전남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선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시·도별 맞춤형 교원양성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학교에 교사를 채워주는 방식의 현 체제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다"며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기관 지정과 자율성 확보, 대학·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역할은 국가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한계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대, 외국인 학생 한국어 겨루기 대회

170여명 참여 유창한 실력 뽑내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유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그들만의 리그'를 펼쳤다.

광주대 국제협력처는 최근 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베트남,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미얀마 등 외국인 유학생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어 연수 과정 수료식 및 한국어 겨루기 대회'를 개최했다. 9<사진>

골든벨 방식으로 펼쳐진 한국어 겨루기는 한국어 실력을 겨룬 끝에 엠호프랩 몽흐에르텐(몽골)씨

가 우승을 차지했다. 또 한국어 연수 과정 수료식에서는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근면 성실, 봉사정신을 인정받은 총 10명의 유학생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몽흐에르텐씨는 "광주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 좋았고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정환 국제협력처장은 "장마와 폭염 속에서 꾸준한 한국어 공부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학생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과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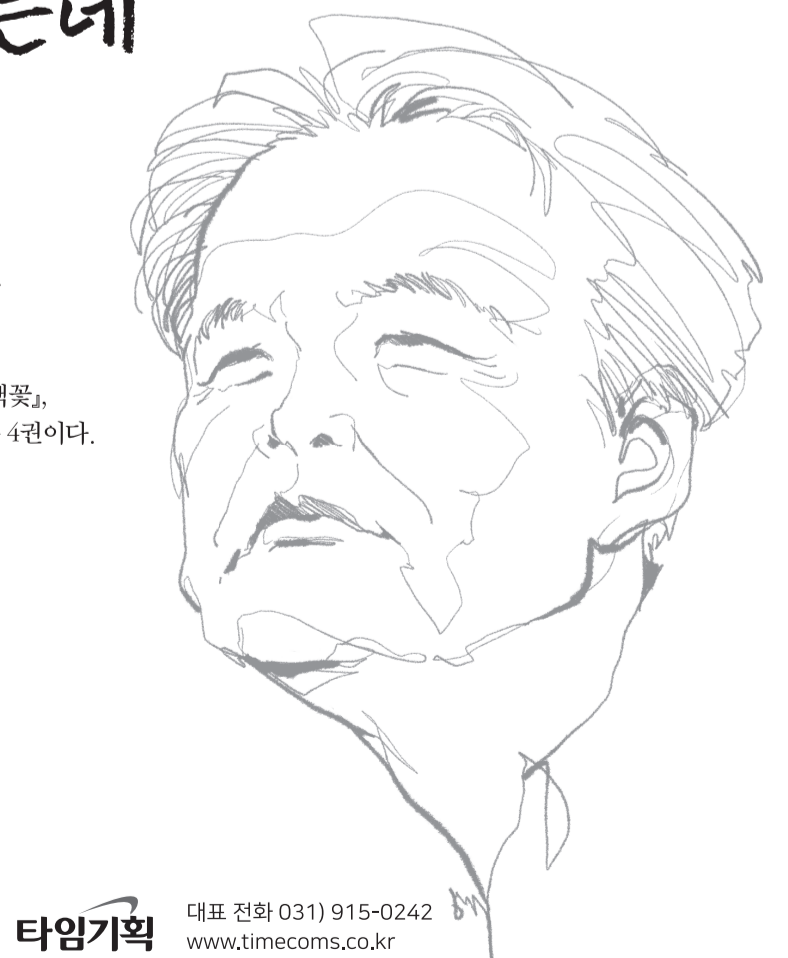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